

LG産電(株), 첨단 디지털 보호계전기 개발

LG産電(株)(代表:李鍾秀)는 전력계통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디지털보호계전기 7종류를 3년동안 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 개발에 성공했다.

보호계전기란 단락이나 지락사고시 선로와 부하단의 제품보호를 위해 송전선로를 차단해주는 계기로 선로보호에 필수적인 장비이다. 현재 국내시장(100억원)의 50%에 이르는 디지털보호계전기의 시장은 전량 외국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따라 LG산전의 이번 디지털보호계전기의 개발은 연간 5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97년도 중전기기분야의 유통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중전기기분야의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개발한 디지털보호계전기는 기존의 아날로그 보호계전기와는 달리 정밀도 및 프로그램 입력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아날로그방식은 검출량의 정확한세팅(Setting)이 어려워 오차율이 $\pm 5\%$ 인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번에 개발한 디지털방식은 액정표시판에 나타난 수치를 보고 초보자도 쉽게 세팅할 수 있어 오차율 0%로 정확한 세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이번제품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채택하여 기존제품에 비하여 외형크기를 30%축소하여 소형화를 실현 최적의 배전반설계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제품교환시 이탈착이 손쉬운 인출형 구조로 설치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각 동작부에 내장된 자동감시기능 및 이상상태 표시기능으로 사고의 발생 및 원인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초보자라도 간단한 프로그램입력으로 쉽게 고장유무를 쉽게 판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LG산전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보호계전기 시장에서 금년도 10억원의 매출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속적인 제품개발은 물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LG電線(株), 도약 2005 선포식

LG電線(株)(代表:權攸久)는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임원과 사원대표, 노동조합원등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목표와 사업 전개방향을 발표하는 『도약 2005』 선포식을 가졌다.

LG전선은 이 날 행사에서 매출목표 7조원, 해외 사업부문 30%이상, 이익률 2배 성장등을 골자로 하는 2005년 경영목표를 발표했다.

LG전선은 電線산업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의 특성상 사업영역의 확대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하고 사업영역을 전선 제조 중심에서 제조와 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하는 체제로 확장하기로 했다.

LG전선이 발표한 『도약 2005』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선산업의 기초분야인 線材와 절연재료의 경우 이를 분리시켜 전문성이 강화된 독립會社(Satellite Company)로 육성함으로써 성장의 폭을 배가시킬 방침이다.

세계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현재 6%대에 머물고 있는 해외부문의 사업비중을 30%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전선은 이미 진출해 있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생산 거점으로 시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와 서남아시아시장을 중점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고 현지 인력을 대폭 활용함으로써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방침이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LG전선은 ‘Fact(사실)에 근거한 精密經營’, ‘비효율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한 스피드 經營’, 그리고 ‘주인정신과 팀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共感經營’을 실행 프로그램의 축으로 정했다.

LG전선은 이 날 선포식과 함께 7월까지 실행팀 구성과 사업부별 과제설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8월부터는 본격적인 『도약 2005』 목표를 향한 실무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榮和産業電機製作所, ISO 9002 인증 획득

MOF, PT, CT등 변성기류 전문 생산업체인 영화산업전기제작소 (代表:孔虎泳)는 최근 한국 전기전자시험 연구원으로 부터 ISO 9002 국제품질보증시스템 인증을 획득, 부천 공장에서 수여식을 가졌다.

지난 61년 설립된 이래 30여년간 축적된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꾸준한 연구개발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내 변성기 업계를 주도해 온 영화산업전기제작소는 이번 ISO 9002 인증 획득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높은 신뢰성과 우수성을 입증하게 됐다.

영화산업은 ISO 9002 인증 획득을 위해 그동안 ISO 관련규정 사내 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원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부터 각 부문별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 임직원이 품질향상을 통한 제2의 도약대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ISO 인증 획득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영화산업은 이번 ISO 9002 인증 획득을 발판으로 완벽한 품질 시스템을 구축, 품질향상은 물론 앞으로 신규 해외시장 개척 및 다변화를 통해 수출을 크게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世紀電子工業(株), 원가 절약형 용접봉 개발

世紀電子工業(株)(代表:金榮洙)는 작업성이 뛰어나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첨단 용접봉을 자체 개발해 양산에 나섰다.

동사가 2년간 개발기간을 거쳐 생산기술과 기계설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한 이 제품은 가공형상이 기존의 둥근 형태 용접봉과 달리 편형형상으로 개발돼 용접속도가 빠르고 용접 20%이상 절감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이런 형태의 제품은 미국의 해리스사등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에서만 생산했던 것으로 세기전자는 이제품의 국내 실용실안 특허를 출원하고 가공설비도 개발해 월 30t을 생산키로 했다.

주요 공급처는 각종 건축현장과 산업현장외에도 고급 용접기공이 필요한 특수 분야로 잡고 있으며 해외 시장개척에 힘써 일본과 미국, 벨기에, 독일 등 편형 제품을 사용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올해 5백만달러 어치를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남동공단 소재 공장의 설비확장에 나서 오는 8월부터 월 생산능력을 1백t 규모로 늘리기로 했으며 이제품이 작업성이 뛰어나고 용접 마무리 상태도 좋아 기존 제품보다 고가이지만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